

# 생활말씀 4월

2022년 4월

**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”  
(마르 16,15)**

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함께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는 처음으로 나타나시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.

그때 사도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, 이는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이 작은 공동체에 좌절의 표징들이 보입니다. 원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로 삼고자 하신 이들은 열두 명이었지만, 이제는 열한 명으로 줄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도들 중 누군가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을 때, 그분을 모른다고 했었고, 그들 중 대다수는 도망을 갔었습니다.

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이 마지막 결정적인 만남에서, 사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보시고 꾸짖으십니다.(마르 16,9-13 참조)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한 다른 이들의 말을 아직도 믿지 못한 채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.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꾸짖으시면서도 동시에, 당신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점을 확인해 주십니다. 곧, 사도들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, 그분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의 임무를 다시 새롭게 맡기십니다.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합니다.

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장엄한 당부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, 성부께로 올라가십니다.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이제부터 제자들 곁에 ‘머물러’ 계시면서 여러 놀라운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,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.

**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”**

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명과 동일한 선교의 소명을 지속해 나가도록 그분에게서 파견된 공동체는,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 공동체는 무엇보다 먼저 그분과 함께 ‘머무르도록’ (마르 3,14-15 참조), 곧 인내할 줄 알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얻은 힘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사실을 ‘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’ 파견됩니다.

그러므로 이 선교 소명의 성공 여부는 각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. 오히려 부활하신 그분께서 현존하시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.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신자들의 공동체에 당신 자신을 내맡기시고, 신자들의 공동체가 복음을 살고 선포하는 만큼 그 공동체 안에 그분의 현존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.<sup>1</sup>

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,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 힘껏 용기를 내어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그분의 보물들을 모든 이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섬세하게, 또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이 보물들을 전해줄 때,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다시 희망을 갖게 해 줄 수 있습니다.

**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”**

복음 선포에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 그러므로 그분께서 점점 커지시도록, 우리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. 바로 우리 자신을 버릴 것이 요구됩니다. 형제애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영靈, 곧

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.

“(...)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. 성령께서는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마다 즉시 그들과 ‘하나가 되게 하시며’, 또 그들에게 온전히 봉사하게 하십니다. 비록 그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,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.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을 자비로 채워 주시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고,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.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합당한 때에 꺼내어 서로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,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. (...)”

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은, 다름 아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. (...)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신 하느님의 이 사랑으로, 또 이 사랑 덕분에, 우리는 먼 곳까지 다다를 수 있고, 다른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바를 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(...) 그리하여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우리가 지닌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와 ‘하나가 되려’ 할 때, 그와 서로 돕게 될 것이고, 이상과 계획, 애정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.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, 이 말씀은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선물이 될 것입니다.”<sup>2</sup>

### 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”

“모든 피조물에게” 라고 하신 말씀은 창조된 삼라만상의 거대한 모자이크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.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특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. 인류가 걷고 있는 이 새로운 여정에서 종종 그 선두에는 젊은이들이 있는데, 이 젊은이들은 복음의 방식처럼 자신들이 말로 선포하는 바를 행동으로써 분명히 보여 줍니다.

뉴질랜드의 로버트 Robert 는 인터넷을 통해<sup>3</sup>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십니다.

“저희 지역에서는 현재 하나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, 뉴질랜드 남부의 포리루아 Porirua 항구를 복원하는 일을 돕는 활동입니다. 이 활동에는 이곳의 지방 자치 단체와 마오리 가톨릭 공동체, 그리고 이 지역 원주민 부족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, 이 항구를 복원하려는 이곳 원주민 부족의 소망에 따라, 이곳에 다시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여 오염에 대한 공포 없이 예전처럼 항상 고기를 잡고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. 이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창출해 냈습니다.

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지되게 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며, 이로써 얼마나 이 현장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있습니다.”

레티치아 마그리  
포콜라레운동 총본부 「생활말씀」 편집위원

### 각주

1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,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「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」 8 항 참조.

2 끼아라 루빅, 2003 년 6 월 생활말씀, in eadem, 『생활말씀 Parole di Vita』, 파비오 차르디 엮음. (끼아라 루빅의 저작들 제 5 권, 치타누오바 출판사, 로마 2017 년), 691-692 쪽 참조. 3 <http://www.unitedworldproject.org/en/workshop/voices-from-oceania-young-people-from-the-daretocare-campaign-speak-out/>에서 이 경험담의 전체 텍스트를 영어로 볼 수 있고, 이 밖에 다양한 언어로 다른 여러 경험담들도 홈페이지 <http://www.unitedworldproject.org/obiettivi/workshop/>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Focolare contacts in Japan E-mail: [tokyofocfem@gmail.com](mailto:tokyofocfem@gmail.com) [www.focolare.org/japan](http://www.focolare.org/japan)

東京 : 03-3330-5619/03-5370-6424

長崎 : 095-849-3812

포콜라레(마리아사업회) 도서출판번안로 인터넷서점 <http://www.focobooks.com>  
서울 본부 : 여 (04607) 서울 중구 다산로 21 길 27-9(신당동)/전화 02-2232-2460  
서울 본부 : 남 (04002)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9-9(서교동)/전화 02-332-1010

